

## 청소년 음주 및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

김 용 석

(가톨릭대학교)

### [요 약]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인 음주와 비행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영향모델에 기초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또래 및 부모관련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 및 부모관련 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음주 및 비행에 대한 인식변화, 음주 및 비행과 관련된 또래 압력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그램은 서울 00중학교 2학년 1개 학급에서 2개월 동안 주 진행자 1인과 보조 진행자 2인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음주행동, 음주에 대한 태도, 그리고 비행 수준을 양호한 방향으로 변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와 실천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더욱 완성된 프로그램과 일반화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남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음주, 비행, 청소년 문제행동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 중에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포함된다(Hepworth, Rooney, and Larsen, 2002). 예방은 다수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의 감소 또는 제거를 강조하면서 그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B20334).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다(Institute of Medicine, 1994). 본고의 대상인 청소년들 중 일부는 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문제를 가지게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예방적 목적을 갖는 경우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음주와 비행은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이다(Brook, Whiteman, Balka, and Cohen, 1997). 최근에 실시된 조사들을 살펴보면, 중학생들 중에서 음주를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70%를 차지하여 10명 중 약 7명은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제갈정, 허영혜, 김소희, 2004) 지난 한 달 동안 음주 경험율도 약 15% 내지 22% 정도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2001; 장정일 김용석, 장정연, 2005). 청소년 비행율은 매년 증가하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 비행이 강력범죄화,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소년범의 재범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김지선, 2005). 소년범의 현황을 보면,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전체 소년범 중 여자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이래로 6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또한,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의 증가는 청소년 비행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컴퓨터 게임 사용 시간은 인터넷 비행(예; 온라인 도박, 원조교제, 해킹, 타인 정보 이용 등)과 오프라인 비행(예; 무단결석, 혼숙, 공공기물 파기 등)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김은정, 2005).

청소년 음주와 비행은 그 자체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행동이기 때문에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는 개입방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 문제행동의 예방에 초점을 두는 개입전략보다는 두 가지 문제행동을 동시에 예방하는 개입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일 문제행동만을 다루는 개입 보다는 청소년들이 흔히 보이는 문제들을 동시에 다루어주는 개입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개입의 필요성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존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강조된다. 문제행동의 공존성이란 특정 청소년이 한 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관련 연구(Huizinga and Jakob-Chien, 1998; Wilson, Gottfredson, and Najaka 2001: 248 재인용)에 의하면,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7%~51%가 알코올 또는 약물을 사용한 반면, 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알코올 또는 약물사용 경험율은 1~3%로 보고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이 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 학교관련 문제를 가질 가능성에 있어서도 3~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존성은 한 가지 이상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동시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가 되며 다수의 문제행동의 발생과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한 가지 이상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시 개입의 목적을 가진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국내 사회복지 학술지에 발표되는 임상실천논문의 비율이 매우 낮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양옥경, 2000) 한 가지 이상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실천이 거의 수행되어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 및 비행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적용함으로써 동시 개입의 유용성을 학계와 실천현장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청소년 음주 및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 1)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존

청소년 문제행동을 주제로 하는 다수의 연구들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Jessor와 Jessor(1977)의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특징과 원인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문제행동이론은 문제행동의 공존을 주장한다. 특정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다른 형태의 문제행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 특정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행동에 가담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행동은 마치 증후군과 같은 패턴(syndromelike patterning)을 보인다(Jessor et al., 1977). 다시 말해서 청소년 음주, 비행, 도박, 성격형 등과 같은 개별문제행동들이 “문제행동증후군”이라는 단일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Welte, Barnes, Hoffman, 2004). 문제행동의 공존은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입증되어 왔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Griffin, Botvin, Scheier, Diaz과 Miller(2000)의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는 모두 공격적 행동 및 비행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음주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Huang, White, Kosterman, Catalano과 Hawkins(2001)의 논문에서도 두 변인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는 흡연 또는 다른 종류의 약물사용 보다 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Dawkins(1997)의 연구는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사용(알코올, 대마초, 헤로인)과 여러 범행유형과의 사이에 다수의 정적 관계를 밝혀내었는데 특히 음주는 전체 21개의 범행유형 중 20개의 유형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서두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존성에 더하여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존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Huang 외(2001)의 연구에서 음주와 공격성 간의 관계의 강도가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약화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Jessor와 Jessor(197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Jessor 외(1977)의 연구결과를 보면, 문제행동들 간

의 관련성이 대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성의 정도가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부모 및 또래관련 요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 위험요인

### (1) 예비조사

청소년 음주 및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김용석, 2004a). 예비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818명의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청소년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예비조사의 일차적 목적이었다.

청소년 음주와 비행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3가지 관점이 존재한다(Brook et al., 1997; Otero-Lopez, Martin, Redondo, Pena, and Trianes, 1994).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음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불량 교우집단 등 비행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비행문화는 음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또는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가 비행의 원인이라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다. 음주는 청소년의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또한 흥분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정당한 행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술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청소년 음주와 비행은 두 가지 문제행동에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음주가 비행 또는 비행이 음주를 발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제 3의 요인들이 두 가지 문제행동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조사는 위에서 서술된 3가지 관점들 중에서 세 번째 관점에 기초하면서 청소년 음주 및 비행과 관련 있는 다양한 공통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였다. 잠재적 공통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에 포함된 잠재적 공통요인으로는 부모관련 요인(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 부모감독, 부모의 음주문제), 친구관련 요인(친구의 음주, 비행을 경험한 친구의 비율), 대중매체(TV 시청 정도), 개인적 요인(대처기술, 의사결정기술, 충동성)이었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는 청소년 음주와 비행과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청소년 음주와 비행은 정적 관계를 보여 음주하는 청소년이 비행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는 앞에서 서술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존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분석에서 보였던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가 회귀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음주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비행과 잠재적 공통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델(모델1)과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음주와 잠재적 공통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델(모델2)을 분석하였다. 단계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주와 비행은 각각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측하더라도 예측력이 매우 미미하였다. 예비조사는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잠재적 공통요인들을 회귀모델에 투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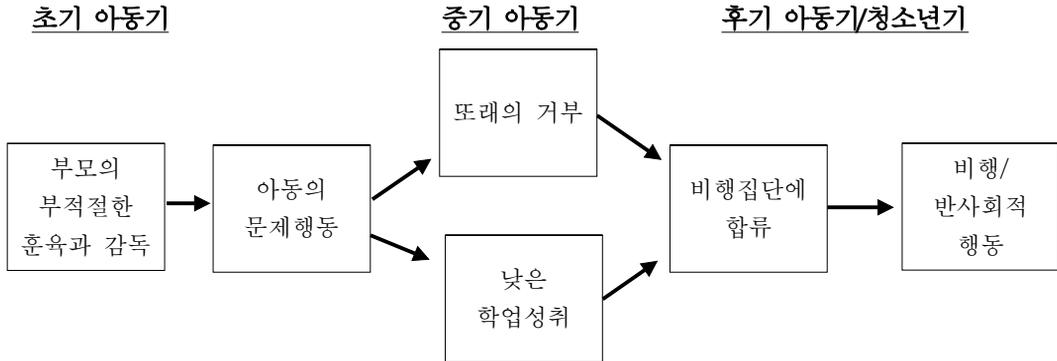
후 비행과 음주를 각각 2단계에 투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잠재적 공통요인들을 통제한 후 음주가 비행을 그리고 비행이 음주를 예측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잠재적 공통요인들이 음주와 비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8%~28%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2단계에 투입된 비행과 음주가 서로를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0.4%와 0.3%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음주와 비행은 공존하여 한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동시에 다른 형태의 문제행동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문제행동이 공존하는 이유는 음주와 비행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존재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문제행동들에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예비조사는 청소년 음주 및 비행과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예비조사가 고려한 9가지 잠재적 공통요인들 중에서 친한 친구의 음주빈도와 비행에 관여한 친구 비율이 중학생들의 음주 및 비행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관련 요인들(부모감독,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이 그 다음으로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예비조사는 친구관련 요인들과 부모관련 요인들이 청소년 음주 및 비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2) 부모요인, 또래요인, 청소년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

예비조사를 통해서 청소년 음주와 비행에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로 밝혀진 부모관련 요인과 또래관련 요인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온 Patterson과 동료들(1989)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왔다. 그들에 따르면,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패턴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Patterson, DeBaryshe, and Ramsey, 1989). 일관성이 결여된 자녀 훈육방식과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의 소홀은 아동기 자녀의 무질서한 행동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자녀의 행동은 강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정에 의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된다.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녀를 체벌하게 되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면, 부모는 궁극적으로 소진되어 자녀를 적절하게 훈육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는 부모의 체벌에 대해 더욱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를 강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아동의 강압적인 행동은 학교환경으로까지 확대되어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대다수의 친구들로부터 거부되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게 되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반사회적이고 비행성 있는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 또래집단에 합류하게 된다(Patterson et al., 1989).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청소년기 문제행동은 주로 또래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되며 비행 또래집단의 합류는 적절하지 못한 양육에 기인한다는 것을 그림 1은 보여주고 있다.



출처: Patterson, G. R., B. D. DeBaryshe, and E.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31.

<그림 1> 반사회적 행동의 형성과정

많은 국내외 경험적 연구들은 청소년 문제행동 형성의 원인으로 부모와 또래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Ary, Duncan, Duncan과 Hops(1999)는 11세에서 15세 아동과 청소년 204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부모관련 요인, 또래관련 요인, 청소년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가족 내 갈등은 긍정적 가족관계를 약화시키고 낮은 수준의 긍정적 관계는 1년 후의 부적절한 부모 감독과 비행 친구집단의 합류를 예측하였으며 부모 감독과 또래집단은 2년 후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측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모관련 요인과 또래관련 요인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52%나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 또한 매우 높았다. 특히 Ary 외(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은 반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고위험 성적 행동, 학업실패, 약물남용을 포함하고 있어 반사회적 행동의 형성에 초점을 두었던 모델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 문제행동에도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y, Duncan, Biglan, Metzler, Noell과 Smolkowski(1999)는 52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부적절한 부모관련 요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형성하는데 일차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며 이후 자녀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친구집단에 합류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Duncan, Biglan과 Ary(1998)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부모감독, 부모-자녀 갈등, 또래비행 등이 청소년 약물남용(음주, 흡연, 대마초 사용)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국외 연구들처럼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우나 국내에서도 부모와 또래관련 요인들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어성천(1995)은 약 800명의 고등학교 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위비행(흡연, 가출 등) 및 범죄행동(폭행, 약물남용 등)과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생들의 회상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 및 범죄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부모감독과 친구비행이 각 시기의 비행 및 범죄경험과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Patterson의 이론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3) 예방 모델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들은 정보전달모델, 정서모델, 사회영향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전달모델과 정서모델이 초기 예방모델로 분류되는데, 정보전달모델은 예방의 표적에 관한 정보(예; 약물남용, 에이즈 등의 부정적인 결과) 제공에 초점을 두는 교육적 접근을 취하며, 정서모델은 가치관을 명료히 하고, 일반적인 사회기술을 증진시키며, 자긍심을 향상시킨다면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초기 예방모델에 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편인데 그 이유는 취약한 이론적 기반 때문이었다.

초기 예방모델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그 결과 사회영향모델이 출현하였다. 사회영향모델은 주로 사회학습이론과 문제행동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으며(Botvin, 1996)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 있는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의 학습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은 적극적인 사회적 영향과 소극적인 사회적 영향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특정 행동(예; 음주)을 강요하는 또래압력은 적극적인 사회적 영향이며 또래집단의 행동규준에 대한 왜곡된 인식(예; 나와 비슷한 또래들 중 대부분이 술을 마신다)은 소극적인 사회적 영향으로 분류된다(Wood, Read, Palfai, and Stevenson, 2001). 경험적 연구들(Otero-Lopez et al., 1994; Garnier and Stein, 2002)은 두 종류의 사회적 영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친한 친구의 문제행동을 가장 강력한 사회적 영향으로 들고 있다.

사회영향모델은 주로 약물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기반 예방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왔으며(Mittelmark, 1999) 가장 효과적인 예방모델로 평가받고 있다(Stipek, Sota, and Weishaupt, 1999; Botvin and Griffin, 2004; Skiba, Monroe, and Wodarski, 2004). 사회영향모델을 사용하는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영향이 청소년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술, 담배, 기타 약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수정, 약물거절기술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Tengs, Osgood, and Chen, 2001). 사회영향모델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예방 프로그램으로 Botvin의 생활기술훈련(Life Skills Training)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생활기술훈련은 음주와 (담배와 대마초)흡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처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자기주장훈련과 같이 대인관계기술의 교육과 훈련도 포괄하는 예방프로그램이다.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약물남용 분야이외에 분노조절, 폭력예방, 성 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적용되고 있다(Buysee and Oost, 1997; Stipek et al., 1999).

### 4)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는 청소년 음주 또는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학

교사회사업』과 『한국아동복지학』에서조차도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을 다루는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다행히도 청소년 음주 예방은 90년대 후반부터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주 예방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관한 조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1)도 수행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은 알코올에 대한 정보, 행동, 사고의 다면적인 측면을 다루는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인 운영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매우 짧아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최근 들어 개발된 학교중심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윤혜미, 2004)은 기존 프로그램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입증된 사회영향모델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매스미디어와 음주, 또래압력에 대처하는 방법, 자기주장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을 다루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이 보여주듯이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의 술에 대한 태도 변화와 사회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모관련 요인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집단 활동에 의한 실습, 토론 등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진행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총 8주 동안 운영된다. 명확한 이론적 기반, 상호작용적 진행방식, 프로그램 운영기간 등 이 프로그램이 갖는 특징은 이 프로그램을 기존 프로그램과 확실히 차별화시켜 주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는 유보적이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및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김용석, 2004b; 최현숙, 2004),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장승욱, 2004) 등이 개발되어 있다.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비행의 원인, 비행으로 이르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엄명용, 2000;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이거나 이미 비행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배임호, 박정화, 1997)가 대부분이다. 이익섭과 김근식(1999)의 논문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유일하게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한 연구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환경의 긍정적 기능 강화를 통한 비행 예방을 목표로 비행성향은 없으나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예방 프로그램(selective prevention program)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고가 다루는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universal prevention program), 즉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학계 내에서 청소년 음주 또는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복수 문제행동을 동시에 다루는 예방 프로그램을 발견하기는 더욱 더 어려웠다. 복수 문제행동을 동시에 다루는 예방 프로그램의 부재는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타 학문분야의 학술지들에 발표된 논문들에 대한 조사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국회전자도서관 소장 자료들 중에서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들을 검색하는 방법<sup>1)</sup>을 취하였다. 검색결과 총 82편의 논문들이 예방 프로그램을 다루었으며 이들 중에서 20편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들이었다. 그러나 20편 논문에서 소개된 모든 예방프로그램이 단일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복수 문제행동을 동시에 다루는 예방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표 1>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논문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대상	논문 편수
흡연 예방	초등학생, 청소년	4
음주 예방	청소년, 대학생	2
약물남용 예방	청소년, 노인	2
비행 예방	청소년	2
우울증 예방	노인	2
성 학대/성 폭력 예방	아동, 정신지체 장애인	2
인터넷 중독 예방	청소년	1
집단따돌림/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2
기타(낙상, 골다공증, 전염병 예방)	성인 여성, 노인	3

외국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프로그램이 20여 년 전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예방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1980년대의 경우 단일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예방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 프로그램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정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문제행동의 공존과 다수의 문제행동들에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의 존재를 간과하였다는 것이 이들 프로그램들이 비판받는 주요 이유였다(Catalano, Hawkins, Berglund, Pollard, and Arthur, 2002).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을 보면 여러 문제행동들을 동시에 다루는 예방프로그램들이 점차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약물남용, 비행, 성적 행동, 법적 조치(구속, 체포 등)를 동시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Hanlon, Bateman, Simon, O'Grady, and Carswell, 2002). 더 나아가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일부 예방프로그램들은 문제행동의 예방과 동시에 친사회적 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기반 예방프로그램인 Second Step은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Frey, Hirschtein, and Guzzo, 2000; Catalano, Mazza, Harachi, Abbott, Haggerty and Fleming 2003 재인용), 또 다른 학교 기반 예방프로그램인 Raising Healthy Children도 친사회적 행동(학업성취)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반사회적 행동과 정신건강문제의 감소에 초점을 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Catalano et al., 2003). 비록 외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예방프로그램들이 단일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지만(Flay, Allred, and Ordway, 2001), 청소년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이 복수의 문제행동들을 다루는 추세를 보이

1) 국회전자도서관 통합검색 화면에서 자료구분을 학술지로 제한하고 검색창(전체항목)에 '예방프로그램'을 입력하였다

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는 의견(Catalano et al., 2002; Coie and Jacobs, 1993; Flay et al., 2001)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 3. 프로그램 설계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 및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음주행동, 음주기대, 비행수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를 사용하였다.

#### 2)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내용

#####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존성 그리고 문제행동은 공통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 음주 및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청소년 음주와 비행에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 관련 요인과 또래관련 요인이 두 가지 문제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공통요인들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공통요인들과 청소년 음주 및 비행의 발생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후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하였다.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오늘날 여러 예방 프로그램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영향모델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영향모델은 청소년기 문제행동 예방을 위하여 문제행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회적 영향들을 다루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초점을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두 가지 사회적 영향(부모관련 요인과 또래관련 요인)을 다루는데 두었으며 두 가지 사회적 영향들 중 또래관련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다음 단계로 두 가지 사회적 영향들이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구체적인 개입방안의 고안과 연결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단계이다.

첫째, 비행은 동료와 함께 행하는 동반자적 행동(companionate activity)으로 정의(Erickson and Jensen, 1977; Haynie and Osgood, 2005: 1110 재인용)되듯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유사한 행동에 가담하는 친구들을 사귀는 성향이 높다. 여러 연구들(Otero-Lopez et al., 1994; Haynie et al., 2005)에서도 친구의 음주 행동과 비행성향은 청소년 음주 및 비행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친구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복잡하겠지만, 특정 행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친구들의 압력은 청소년을 문제행동에 관여하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다(Garnier et al., 2002). 직접적이면서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친구의 압력을 거절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래압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친구들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또래관련 영향과 관련해서 Olds와 Thombs(2001)는 인식(perception)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친구의 문제행동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예비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자신들보다 자신과 친한 친구가 술을 더 자주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친구들이 문제행동에 관여하는 비율과 정도에 대해 갖는 과장된 혹은 왜곡된 인식은 청소년이 문제행동에 대해 허용적인 규범을 채택하게 하고 결국 자신도 문제행동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사회통제이론으로 잘 알려진 Hirschi(1969)는 사회와의 유대 결여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부모-자녀 간의 결속력 강화는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규칙에 순응하는지를 감독하며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적용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도덕관과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내면화 과정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애정적일수록 더욱 촉진될 수 있다.

## (2) 프로그램 내용

예비조사 결과, 사회영향모델, 사회적 영향(부모와 또래관련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아래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사회적 영향으로 분류되는 또래압력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음주 및 비행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상황들(예; 친구와의 동반 가출, 음주를 부추기는 친구 등)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밝히고 연습해 보는 기회 등을 참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눈 후 모둠별로 음주 및 비행과 관련된 또래압력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재연하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각 모둠의 역할극을 관찰하면서 친구로부터 음주 및 비행과 관련된 압력을 받는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하고 토의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술,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술, 경청하기 기술 등을 소개받고 연습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또래관계에 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서 게임과 토의를 통해서 올바른 친구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참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단순 주입식 교육보다는 게임과 같은 동적인 활동을 통해 신뢰적인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 음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정보, 비행의 정의에 대한 올바른 정보, 대다수의 청소년이 문제행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이 음주와 비행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부모가 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으나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는 기회는 가족의 의미, 부모와의 관계 개선방법,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참여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가족의 소중함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자아상을 다루는 기회를 포함하여 청소년기 음주와 비행이 올바른 자아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인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방법에 관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참가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표 2> 프로그램 내용

회기	주제	주요 내용
1회기	오리엔테이션 및 집단정체성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소개</li> <li>· 집단 규칙과 과제 소개</li> <li>· 모둠편성</li> <li>· 사전조사</li> </ul>
2회기	청소년음주 및 비행에 관한 지식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음주 및 비행 현황 이해</li> <li>· 청소년 음주 및 음주로 인한 결과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 습득</li> <li>· 청소년 비행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li> </ul>
3회기	자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을 통한 자아상에 대한 이해</li> <li>· 자아상과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li> <li>· 자신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긍정적인 미래상 만들기</li> </ul>
4회기	또래관계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 관계에 관한 생각 나누기</li> <li>· 게임을 통해 신뢰적이고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 체험</li> </ul>
5회기	또래관계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유형에 관한 토의</li> <li>·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li> <li>· 올바른 친구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 관한 의견 나누기</li> </ul>
6회기	또래 압력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관계에서 자기주장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li> <li>· 역할극을 통해 음주 및 비행과 관련된 또래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습득</li> </ul>
7회기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주변 환경 돌아보기</li> <li>· 부모와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기</li> <li>· 부모와의 갈등을 생각해보고 해결 가능한 방안 모색</li> </ul>
8회기	전체 프로그램 정리 및 사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자신을 아끼고, 친구, 부모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자신과의 약속</li> <li>·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새로운 사실이나 느낌 공유</li> </ul>

### 3) 프로그램 참가자

예방적 개입을 펼칠 수 있는 최상의 장은 학교 세팅이다. 비록 학업 중단 청소년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청소년이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학교 세팅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래관계를 토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프로그램 진행자는 급우와의 관계와 그 관계로 인해 경험한 바와 같은 토론 내용에 대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개입의 효과를 끌어 올리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학교섭외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담당교사와 교감에게 본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학교 측과 상의를 거쳐 중학교 2학년 1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중학생으로 결정한 이유는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한 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저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고(Jessor et al., 1977)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는 조기에 실시할수록 그 효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총 33명의 중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4)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저자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동기, 프로그램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프로그램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본 연구의 저자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각 회기의 내용, 실행방법, 진행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004년 1학기 8주 동안 매주 1회 실시되었으며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 회기의 시간 45분이었다. 기본적으로 각 회기는 이전 주의 주제에 대한 재검토, 각 회의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강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실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진행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기술이란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토의, 브레인스토밍, 새로운 행동의 연습 등)를 촉진하는 기술로 정의된다(Office of Substance Abuse Prevention, 1989; Tobler and Stratton, 1997 재인용). 120개 학교 기반 예방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Tobler et al., 1997)는 예방프로그램의 유형을 상호작용 유형(interactive type)과 비상호작용 유형(non-interactive type)으로 구분한 후 유형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호작용 유형으로 분류된 예방프로그램들이 비상호작용 유형으로 분류된 예방프로그램들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방프로그램은 집단별 토의, 역할연습, 게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 내용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프로그램은 1명의 주 진행자와 2명의 보조진행자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주 진행자는 학부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으며 석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수년 간 취업한 경력이 있어 청소년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경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보조진행자 중 1명은 음주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였으며 나머지 1 명은 석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 5) 프로그램 평가방법

청소년 음주 및 비행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첫째,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음주행동, 음주기대, 비행 수준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음주행동은 다수의 연구들(Brown, Myers, Lippke, Tapert, Stewart, and Vik, 1998; Willouby, Charlmers, and Bussari, 2004)처럼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Willouby et al., 2004) 청소년 음주빈도와 평균 음주량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음주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음주행동은 비행과 보통 크기의 정적 상관관계( $r=.41$ )를 보였다. 본 연구도 조사대상자의 음주행동을 술을 마신 횟수와 평균 음주량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횟수에 술을 마실 때 평균적으로 마시는 양을 곱해서 나온 값을 30으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1일 알코올 소비량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음주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음주기대는 음주의 효과나 음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음주자가 갖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1999)의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의 음주기대를 측정하였다. 윤혜미 등이 활용한 도구는 Christiansen과 동료들(1989)이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을 우리말로 변안한 것으로 사교성 향상, 긴장감소, 공격성, 성적 기능 향상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사교성 향상 척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의 음주기대를 측정하였다. 사교성 향상 척도는 음주의 사교성 향상 측면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들은 4가지 하위척도들 중에서 음주행위 및 결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척도로 사교성 향상 척도를 들고 있다. Shen, Locke-Wellman과 Hill(2001)은 가족 내에 알코올중독자가 있는 고위험 가족의 청소년 집단과 가족 내에 알코올중독자가 없는 가족의 청소년 집단의 음주기대를 비교한 결과 사교성 향상 척도에서만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Kline, 1996)에서도 음주기대의 하위척도들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음주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유일한 척도가 사교성 향상 척도였다. 한국어판 사교성 향상 척도의 타당도는 윤혜미 외(1999)의 연구에서 입증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로 매우 높았다.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종훈, 손익기, 류석환(2002)이 개발한 한국어판 비행청소년 선별척구를 사용하였다. 비행 청소년 선별척도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아니다”에 1점을 “항상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는 4점 척도이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며(이종훈 외, 2002)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0.65였다.

둘째, 효과크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t 검정과 같은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목적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Trusty, Thompson, and Petrocelli, 2004)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나타난 관계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effect size)를 활용해야 한다(Hudson and Nurius, 1994). 본 연구와 같이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조사 설계를 활용하는 경우 효과크기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간 차이의 크기를 의미한다. 효과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방식은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다.

셋째, 양적인 평가만으로는 실천적 함의가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이슈들을 다루어 후속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4. 연구결과

### 1)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일반적 특성

<표 3>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33명 중에서 남학생이 18명이었고 여학생은 15명이었다. 참가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프로그램 참가 당시 15세인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 3> 참가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학생	18	54.5
	여학생	15	45.5
연령	13세	3	9.1
	14세	9	27.3
	15세	21	63.6

### 2)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음주 및 비행 수준

본 절은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음주 및 비행수준을 타 조사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를 두 집단으로 무작위로 할당하는 실험설계나 또는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연구결과의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취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는 비교의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타 연구들에서 나타난 음주와 비행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음주 및 비행 수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 (1) 음주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한 달 동안 음주빈도, 평균 음주량, 음주기대, 비행에 관한 사전조사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음주한 경우를 현재음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33명의 중학생들 중 36.4%가 지난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월간음주의 평균은 0.82회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4년과 2005년에 실시된 전국조사(제갈정 외, 2004; 김성천, 장승욱, 이명숙, 정슬기, 2005)에서 나타난 중학생 월 음주빈도의 평균(1.01, 1.37)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음주량은 0.82로 계산되어 학생들은 술을 마실 경우 약 1잔정도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표 4>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33명의 중학생들 중 54.5%가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참가 학생들의 음주빈도와 평균 음주량

변인	평균	표준편차
한 달 동안 음주빈도	0.82	1.59
평균 음주량(잔)	1.18	1.63

### (2) 음주기대 수준

<표 5>는 본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들과 타 조사(김용석, 윤혜미, 2001)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음주기대를 비교하고 있다. 음주기대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로 구분되며 <표 5>에 제시된 기대는 긍정적 기대로 분류되는 사교성 향상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표 5>는 두 조사의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조사에서 모두 동일한 문항들이 1, 2, 3순위를 차지하였고 4순위와 5순위만이 순위가 달랐다. 따라서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 중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의 음주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참가 학생들의 음주기대

문항	본 조사		전국조사*	
	%	순위	%	순위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쉬워지고 세상이 좋아 보인다	21.2	4	17.6	5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12.1	5	20.7	4
술은 모임을 더 재미있게 해준다	42.4	1	39.4	1
술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36.4	2	39.0	2
술은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다	30.3	3	30.4	3

\* 김용석·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44: 91-116.

### (3) 비행 수준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행수준은 타 조사(김용석, 장정연, 임영선, 2004)에서 나타난 비행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조사에서 모두 집안규칙 어김과 학교규칙 어김을 경험한 비율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단결석 및 가출과 같이 비행성이 높은 문제행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참가 학생들의 비행수준

(단위: %)

문항내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아니다	
	본 연구	선행 조사*	본 연구	선행 조사	본 연구	선행 조사	본 연구	선행 조사
집안규칙 어김	6.1	4.4	12.1	16.2	72.7	60.0	9.1	19.4
학교규칙 어김	3.0	4.1	6.1	19.8	66.7	61.2	24.2	15.0
싸움	0.0	2.7	3.0	5.2	54.5	55.0	42.4	37.1
무단결석	0.0	1.3	6.1	1.9	9.1	10.6	84.8	86.2
가출	0.0	1.1	3.0	1.3	3.0	7.6	93.9	90.0
거짓말 또는 물건 훔침	0.0	1.2	3.0	3.2	30.3	31.0	66.7	64.6

\* 김용석·장정연·임영선. 2004. 『광명시 청소년 약물 오·남용실태조사 보고서』. 광명시청소년약물남용예방협의회.

### 3)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 음주행동, 음주기대, 비행 수준의 변화

<표 7>은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음주행동, 음주기대, 비행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방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음주행동은 1일 평균 음주량으로 측정되었는데 사전조사 때 0.07이었던 평균 음주량이 사후조사 때 0.03으로 낮아졌으며 사전조사 평균과 사후조사 평균 간의 차이는 유의수준을 0.1<sup>2)</sup>로 했을 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참여한 후 음주빈도와 마시는 술의 양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음주빈도의 평균은 0.24로 사전조사 때의 평균(0.82)과 전국 중학생의 월 평균 음주빈도(1.01, 1.37) 보다 월등히 낮았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음주기대의 차이는 유의수준을 0.1로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음주기대는 사교성 향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사교성 향상은 긍정적 음주기대로 분류된다. 사전조사 때 2.09였던 음주기대의 평균은 사후조사 0.94로 감소되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음주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 사후조사 결과를 전국조사(김용석 외, 2001)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전국조사에서 남자 중학생의 음주기대 평균은 1.27, 여자 중학생의 평균은 1.64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음주기대 평균은 사전조사 때에는 전국조사의 평균보다 높았으나 프로그램이 종결된 시점에는 전국조사의 평균보다 낮았다.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의 비행수준은 사전조사 때(9.30)보다 사후조사 때(7.79) 현저히 낮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음주기대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행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과도 사전조사 때에는 타 조사(김용석 외, 2004)에서 나타난 비행수준(9.49) 보다 높았으나 사후조사 때에는 이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7> 음주행동, 음주기대, 비행 수준의 변화

종속변인	사전조사		사후조사		t 값	ES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음주행동	0.07	0.16	0.03	0.11	1.41+	0.25
음주기대	2.09	4.04	0.94	1.52	1.63+	0.28
비행	9.30	2.14	7.79	1.83	3.50**	0.61

+  $p < .1$  (one-tailed) \*\*  $p < .01$  (one-tailed)

2)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처럼 표본크기가 작을 경우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Rubin and Babbie, 2001).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덜 보수적인 유의수준(예; 0.1)을 사용하였다.

## (2) 효과크기

<표 7>은 효과크기<sup>3)</sup> 통계치도 보여주고 있다. Cohen(1977)은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0.2를 작은 효과, 0.5를 중간정도의 효과, 0.8을 큰 효과로 제시하였다. 3가지 종속변수 중에서 비행에 해당하는 효과크기가 0.6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Cohen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크기 이상의 효과크기로서 본 예방프로그램이 참가 학생들의 비행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Z 분포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Z 분포표를 보면, Z 값이 0.61일 때 평균과 0.61 사이의 비율이 0.2291임을 알 수 있다. 즉 참가 학생들의 비행수준이 사전 조사 때보다 사후조사 때 22.91%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행동과 음주기대의 변화에 해당하는 효과크기는 각각 0.25와 0.28로 중간 크기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가 0.39임을(이상균, 2000) 고려하면 음주행동과 음주기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효과크기를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효과크기와 비교할 때 보다 의미 있는 비교가 되겠으나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 분석이 국내에서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는 후속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 (3) 개입에 대한 평가

본 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중심으로 개입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후속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제한된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들 수 있겠다.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수업시간에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중학교의 경우 1교시가 45분으로 짧은 편이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회기를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세웠다. 도입단계에서는 각 회기의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이전 회기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전개단계에서는 각 회기의 핵심 내용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그리고 정리단계에서는 각 회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회기의 주제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회기 내용에 따라 도입과 전개부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준비된 내용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후속 프로그램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회기를 정할 때 한 회기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각 회기의 핵심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계획적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숙제나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다음 회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회기의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한 회기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음 회기의 도입단계에서 간략히 정리될 수 있도록 모듈별 과제로 부여하는 것도 효율적 시간활용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행을 다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으나 음주를

3) 효과크기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ffect size = 사전조사 평균 - 사후조사 평균 / 사전-사후점수 차이들의 표준편차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술과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실시된 전국조사(김성천 외, 2005)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40.5%와 초등학교의 73.5%가 술을 함께 마시는 대상으로 가족과 친척이라고 응답하여 미성년 자녀의 음주를 허용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와 관련된 가정 내 분위기에 더하여 술에 대한 접근 용이성, 대중매체의 영향 등도 청소년 음주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 수준을 약화시키는 요인들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은 친구들의 문제행동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과 비슷한 대부분의 청소년이 술을 마신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lds et al., 2001). 따라서 후속 프로그램은 미성년자의 음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고 또래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잘못된 신념 또는 과장된 인식을 수정하는 내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기, 중간, 종결단계별로 학생들의 관심과 프로그램의 집중력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것 같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편이나 점차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음주 및 비행에 관한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는 초기단계 이후부터는 역할극, 게임, 시청각 자료 활용 등 활동위주의 진행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실제로 비행과 음주문제를 실제로 경험했거나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례들(가출충동,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셨던 경험, TV를 통해 본 사례 등)을 실제 상황처럼 재연하는 역할극, 게임을 통한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 체험 등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활용한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특히 높았다.

## 5. 결론

### 1) 주요 연구결과

조기에 알코올 및 약물을 접하고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약물남용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Institute of Medicine, 1994) 이미 비행과 음주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효과성과 비용 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치료적 개입의 대상보다는 예방적 개입의 대상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 물론 일부 복지관과 정신보건센터가 학교 현장에서 진로탐색, 왕따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일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수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동시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인 음주와 비행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프

로그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예방 프로그램은 이론적으로는 문제행동이론에 기초하고 내용적으로는 사회영향모델에 기초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또래 및 부모관련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 및 부모관련 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대인관계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음주 및 비행에 대한 인식변화, 음주 및 비행과 관련된 또래압력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그램은 서울 OO중학교 2학년 1개 학급에서 2개월 동안 주 진행자 1인과 보조 진행자 2인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음주행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비해 프로그램을 종결한 시점에서 낮아졌으며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의 비행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및 실천을 위한 제언

청소년 음주와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학계와 실천현장에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후속연구와 실천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실천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더욱 완성된 프로그램과 일반화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언급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갖는 뚜렷한 한계는 연구설계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를 사용하였는데 이 설계는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개입의 효과로 볼 수 있으나 개입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집단설계를 활용한 연구의 결과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을 갖는 실험설계 또는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교집단의 설정이 본 연구와 같은 임상논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집단 내에 실험, 비교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동일한 집단 내에 있는 일부 클라이언트들에게만 개입을 제공하고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에게는 개입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개입의 효과가 흐려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처럼 예민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 대안은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유사한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개입에 대한 평가를 반복하고 동일한 결과를 재생산함으로써 개입과 개입결과 사이에 인과적 관계의 성립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결과의 일반화까지 이를 수 있다(Rubin et al., 2001). 반복 연구는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방식을 더욱 알차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비교집단을 설정할 경우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을 동일한 학교 내에서 구성하기 보다는 실험집단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사한 학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위에서 언급했

던 두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후조사를 프로그램 종결과 동시에 실시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부모-자녀 관련 회기의 내용과 진행방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참여 학생들의 부모들을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한부모 가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프로그램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모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도록 후속 연구자와 실천가들에게 조언해 보고 싶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행하는 과제는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서로를 더욱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정서적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청소년 음주 및 비행에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을 추가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예방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가 다루었던 부모 및 또래관련 요인들 이외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효능감, 대처기술, 사회적지지(Albee, 1982)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청소년 음주 및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시킨다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예방 프로그램과 명확하게 차별화된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실천 및 연구를 위한 영역을 확장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짧아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학기 초에 시작하여 학기 중반에 종결하다 보니 학교와 학생들은 학기 후반기를 위한 활동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가졌다. 프로그램 기간은 학교 측과의 협의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진행하였으나,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고 각 주제를 2회기에 걸쳐서 다루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회기를 각 주제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고 두 번째 회기 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실습해 봄으로써 각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1학기 내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학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기간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지도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Nation, Crusto, Wandersman, Kumpfer, and Seybolt, 2003) 후속 연구는 프로그램 기간의 연장을 검토해 볼만하다. 학교에서 예방 프로그램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와 연구자는 프로그램 기간의 중요성을 학교 측에 설명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질의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천 · 장승욱 · 이명숙 · 정슬기. 2005.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청소년위원회.
- 김용석. 2004a. “청소년 음주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탐색: 공통요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33-59.
- \_\_\_\_\_. 2004b. “초등학생을 위한 음주예방 교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편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서울: 한학문화 pp. 38-55.
- 김용석 · 김정우 · 김성천. 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7: 71-106.
- 김용석 · 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44: 91-116.
- 김용석 · 장정연 · 임영선. 2004. 『광명시 청소년 약물남용실태』. 광명시청소년약물남용예방협의회.
- 김은정. 2005. “폭력적 컴퓨터 게임과 공격적 비행, 인터넷 비행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59-377.
- 김지선. 2005.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결연관계의 새로운 모델: 멘터링 프로그램.”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257-300.
-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백서』.
- 배임호 · 박정화. 1997.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79-192.
- 양옥경. 2000. “한국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225-253.
- 이성천. 1995. “비행경력과 비행시기에 따른 비행원인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6(3): 139-172.
- 엄명용. 2000.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사회복지학』 42: 254-289.
- 윤혜미. 2004. “학교중심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편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서울: 한학문화 pp. 58-81.
- 윤혜미 · 김용석 · 장승욱.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8: 153-179.
- 이상균. 2000.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매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0: 131-156.
- 이익섭 · 김근식. 1999. “청소년 비행화 과정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비행화 예방 집단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381-405.
- 이종훈 · 손인기 · 류석환. 2002. “한국어판 비행청소년 선별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예비적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8(1): 80-87.
- 장승욱. 2004.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또래지도자 양성프로그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편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서울: 한학문화 pp. 84-106.
- 장정일 · 김용석 · 장정연. 2005. 『인천지역 약물 오·남용 실태 및 의식조사』.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 전영실. 2002. “부모의 훈육과 비행의 관계 연구.” 『형사정책연구』 13(1): 89-121.
- 정익중 · 박현선 · 구인희. 2006. “피학대 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제갈정·허영혜·김소희. 2004. 『음주 청소년 특성 조사 및 개선방안』. 청소년위원회.
- 최현숙. 2004. "대학생 생활관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편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서울: 한학문화 pp. 125-154.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1. 『한국의 음주문화와 알코올 문제 예방 및 치료·재활』. 심포지엄 자료집.
- Albee, G. W. 1982. "Preventing Psychopathology and Promoting Human Potential." *American Psychologist* 37(9): 1043-1050.
- Ary, D. V., T. E. Duncan, A. Biglan, C. W Metzler, J. W. Noell, and K. Smolkowski. 1999. "Developmen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2): 141-150.
- Ary, D. V., T. E. Duncan, S. C. Duncan, and H. Hops. 1999.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Pe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217-230.
- Barnes, G. M., J. W. Welte, J. H. Hoffman, and B. A. Dintcheff. 1999. "Gambling and Alcohol Use among Youth: Influences of Demographic, Socialization, and Individual Factors." *Addictive Behaviors* 24(6): 749-767.
- Botvin, G. J. (1996). *Life Skills Training: Teacher's Manual for Middle/Junior High School*.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Health Press, Inc.
- Botvin, G. J., and K. W. Griffin. 2004. "Life Skills Training: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5(2): 211-232.
- Brook, J., M. Whiteman, E. B. Balka, and P. Cohen. 1997. "Drug Use and Delinquency : Shared and Unshared Risks Factors in African American and Puerto Ric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pp. 25-39
- Brown, S. A., M. G. Myers, L. Lippke, S. F. Tapert, DG Stewart, and P. W. Vik.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Customary Drinking and Drug Use Record(CDDR): A Measure of Adolescent Alcohol and Drug Involve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427-438.
- Buyse, A. and P. V. Oost. 1997. "Impact of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me on Traditional and Egalitarian Adolescents' Safer Sex Int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0: 177-188.
- Catalano, R. F., J. D. Hawkins, L. Berglund, I. A. Pollard, and M. W. Arthur. 2002. "Prevention Science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mpetitive or Cooperative Framework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 230-239
- Catalano, R. F., I. I. Mazza, T. W. Harachi, R. D. Abbott, K. P. Haggerty, and C. B. Fleming. 2003. "Raising Health Children through Enhancing Social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 Results after 1.5 Yea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 143-164.
- Christiansen, B. A., G. T. Smith, P. V. Roehling, and M. S. Goldman.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fter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57: 93-99.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Rev. ed.)*. New York: Academic Press.
- Coie, J. D., and M. R. Jacobs, 1993. The Role of Social Context in the Prevention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4, 261-273.
- Dawkins, M. P. 1997. "Drug Use and Violent Crime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32(126): 395-404.
- Duncan, S. C., T. E. Duncan, A. Biglan, and D. Ary. 1998. "Contributions of the Social Context to

-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Approach." *Drug and Alcohol Dependence* 50: 57-71.
- Flay, B. R., C. G. Allred, and N. Ordway. 2001. "Effects of the Positive Action Program on Achievement and Discipline: Two Matched-Control Comparisons." *Prevention Science* 2(2): 71-89.
- Garnier, H. E., and I. A. Stein. 2002. "An 18-Year Model of Family and Peer Effects on Adolescent Drug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1): 45-56.
- Griffin, K. W., G. I. Botvin, L. M. Scheier, T. Diaz, and N. L. Miller. 2000. "Parenting Practices as Predictors of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Aggress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Gende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2): 174-184.
- Hanlon, T. E., R. W. Bateman, B. D. Simon, K. E. O'Grady, and S. B. Carswell. 2002. "An Early Community-Based Inter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and Other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6): 459-471.
- Haynie, D. L., and D. W. Osgood. 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2): 1109-1130.
- Hepworth, D. H., R. H. Rooney, and J. A. Larsen. 2002. *Direct Social Work Practice: Theory and Skills(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ang, B., H. R. White, R. Kosterman, R. F. Catalano, and J. D. Hawkins. 2001. "Developmental Associations between Alcohol and Interperson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1), pp. 64-83.
- Hudson, W. W. and P. S. Nurius. 1994. *Controversial Issues : In Social Work Research*. Allyn and Bacon.
- Institute of Medicine. 1994. *Reducing Risk Factor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Jessor, R. and S. Jessor.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NY: Academic Press.
- Kline, R. B. 1996. "Eight-Month Predictive Validity and Covariance Structure of the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AEQ-A)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 396-405.
- Mittelmark, M. B. 1999. "The Psychology of Social Influence and Healthy Public Policy." *Preventive Medicine* 29: S24-S29.
- Nation, M., C. Crusto, A. Wandersman, K. L. Kumpfer, D. D. Seybolt, E. Morrissey-Kane, and K. Davino. 2003. "What Works in Prevention: Principles of Effective Pre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58(6/7): 449-456.
- Olds, R. S. and D. L. Thoms. 2001.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 Perceptions of Peer Norms and Parent Involvement to Cigarette and Alcohol Use." *Journal of School Health* 71(6): 223-228.
- Otero-Lopez, J. M., A. L. Martin, L. M. Redondo, M. T. Pena, and E. R. Trianes. 1994.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Drug Abuse and Delinquency among

-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4(4) pp. 459-478.
- Patterson, G. R., B. D. DeBaryshe, and E.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44(2): 329-335.
- Rubin, A. and E. Babbie. 2001.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4th ed.)*. Belmont, CA: Wadsworth.
- Shen, S., J. Locke-Wellman, and S. Y. Hill. 2001. "Adolescent Alcohol Expectancies in Offspring from Families at High Risk for Developing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763-772.
- Skiba, D., J. Monroe, and J. S. Wodarski. 2004. "Adolescent Substance Use: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Strategies." *Social Work* 49(3): 343-353.
- Stipek, D., A. Sota, and L. Weishaupt. 1999. "Life Lessons: An Embedded Classroom Approach to Preventing High-Risk Behaviors among Preadolescent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9(5): 433-452.
- Tengs, T. O., N. S. Osgood, and L. L. Chen. 2001. "The Cost-Effectiveness of Intensive School-Based Anti-Tobacco Education: Results from the Tobacco Policy Model." *Preventive Medicine* 33: 558-570.
- Tobler, N. S., and H. H. Stratton. 1997.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Drug Pre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8(1): 71-128.
- Trusty, J., B. Thompson, and J. V. Petrocelli. 2004. "Practical Guide for Reporting Effect Size in Quant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 107-110.
- Welte, J. W., G. M. Barnes, and J. H. Hoffman. 2004. "Gambling, Substance 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Deviance Model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 pp. 297-306.
- Willoughby, T., H. Chalmers, and M. A. Busseri. 2004. "Where is the Syndrome? Examining Co-Occurrence Among Multiple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6): 1022-1037.
- Wilson, D. B., D. C. Gottfredson, and S. S. Najaka. 2001. "School-Based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7(3): 247-272.
- Wood, M. D., J. P. Read, T. P. Palfai, and J. F. Stevenson. 2001. "Social Influence Processes and College Student Drinking: The Mediation Role of Alcohol Outcome Experienc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32-43.

## A Study on Development of A School-Based Alcohol and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Kim, Yong-Se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a school-based alcohol and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The program emphasizes the acquisition of skills to effectively deal with peer pressure specific to alcohol use and delinquency as well as to build more healthy relationships with both parents and friends. The program was operated by social workers in a middle school in Seoul for almost 2 months. The program produced positive results. That is, students' drinking frequencies, the level of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and the level of delinquency have been lowe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ngth of the program be extended and the program be replicated by future social work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n order to make the program more effective.

Key Words: Prevention Program, Adolescent Alcohol Use, Delinquenc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논문접수일 2006. 11. 15. 게재확정일 2007. 2. 6.]